

2026. 01. 02. 09:08

새해입니다. 저야 음력을 더 신경쓰는 옛날 사람이지만 그래도 새해입니다. 새해 첫 일기네요. 올해는 말의 해라고, 모두 붉은 말이 어찌고 하지만 무시하고 제일 나아보이는 기념 일러스트를 붙여 놓겠습니다.



지난 202년의 투자는 8.64%로 마감했습니다. 마지막 달에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20원 이상 떨어졌고, 그 여파로 저도 수익률이 2% 감소했습니다.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어차피 하락할 환율이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

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낮은 수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 S&P 500의 연평균 수익률만 달성하면 감사할 뿐이지요. 아무튼 올해는 예정대로...

- ① 년초에는 가격이 가장 싼 LUG를 산다.
- ② 주가의 큰 조정이 발생하면 IT 주식을 산다.
- ③ 6월 즈음에 LUG는 청산한다.
- ④ 남는 돈은 채권이나 산다.

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물론 ④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기타 금융수익입니다. 지도 잘은 모르니 또 그때 그때 달라지겠지요. 아무튼 올해부터는 ham 관련 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아서 최대한

저축을 해보려고 합니다.

아마추어 무선은, 아니 이 취미의 DIY 놀이는 이제 거의 끝이
났습니다. 어제 효크 박스의 제작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
접지선을 이용한 안테나 뿐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대충 계획 (설계도)
이 끝났습니다. 이제는 돈 안쓰는 취미 생활의 시작이군요. 아무튼 올해는
절약의 해 입니다. 최대한 아껴서 JT 저축은행의 여유자금을 2,000 만원
만들어 보겠습니다.

아참, 이번에 도장을 하나 새로 팠는데 가져오질 않았네요. 가져오면
도장을 찍겠습니다.

